(Printed with the demonstration version of Fade In)

문화

Written by

Dee Choi

Copyright (c) 2022

dheukchoi@gmail.com

(Printed with the demonstration version of Fade In)

INT. HOME - DAY

식탁에 한 여성(누나)가 앉아있다. 두 팔은 뻗은 상태로 붕대에 감겨있다.

배고파한다. 일어서서 컵라면 하나를 끓인다. 가루 흘리고 쓰래기 뒷정리 안하면서 지저분하게 끓인다.

다시 앉아서 라면을 먹을려고 한다. 완전히 뻗은 상채로 붕대에 감겨있는 두 팔 덕분에 먹기가 힘들다.

라면을 잡은 팔을 머리 위로 올려 면을 입속으로 떨어트려 본다. 얼굴이랑 옷에 라면 국물이 다 묻는다. 이렇게 먹기는 힘들겠다.

누나
창욱아!

남동생을 부른다.

동생 (O.S.)
뭐?

누나
일로 와봐!

라면을 쳐다본다.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.

라면 뚜껑을 뜯어 식탁에 올려놓고 면을 그 뚜껑 위에 올려놓는다.

머리를 숙여 뚜껑 위에 받친 면을 손없이 먹기 시작한다.

지나가던 사람 (O.S.)
옳지!

바깥에 지나가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 창문 밖을 발아본다.

지나가는 사람이 강아지를 산책 시키면서 강아지가 땅 바닥에 머리를 숙여 간식을 먹는 모습이 보인다.

머리랑 허리를 다시 똑바로 새워 자기 동생을 찾는다. 아직도 안나온다.

누나
창욱아!

동생
왜!

누나
빨리 와봐! 나 도와줘봐 좀!

잠시 기달린다.

동생이 드디어 나온다. 자다 깬 모습니다. 동생도 두 팔이 뻗은 상태로 붕대에 감겨있다.

(Printed with the demonstration version of Fade In)

누나 (cont'd)
왜 이렇게 늦게 나와? 자고있었어? 몇시인데 아직도 자?

동생
뭐?

누나
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배고픈데 라면을 못 먹겠는거야 팔 때문에. 니가 좀 먹여줄 수 없어?

동생
없어.

누나
아 왜~ 나 진짜 배고프단 말이야.

동생
싫어.

누나
아 제발~ 한번만 도와줘라, 응?

동생
니 뚱뚱해 다이어트해.

누나
아 창욱아 제발~ 우린 가족이잖아.

동생
아니 이건 누나가 만든 상황이잖아. 그러니깐 누나가 알아서 해결해.

누나
아니 이게 왜 내 탓이야?

동생
니가 팔을 뻗은 상태에서 붕대를 하자고 했잖아.

누나
이렇게 해야 피가 잘 돌아. 혈핵순환에 좋대.

동생
그게 뭔 소용이야 밥도 못 먹고 똥도 못 딱는데?

누나
난 딱았어. 넌 못 딱았어?

동생
아 뭔 소리 하는거야. 니가 알아서 해.

동생은 퇴장 할려고 한다.

(Printed with the demonstration version of Fade In)

누나
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가 먼저 먹여줄게.

동생
뭘?

누나
너도 배고프지? 내가 라면을 새로 끓여서 내가 먼저 먹여줄게. 그럼 그 다음에 니가 나를 먹여줘. 난 불은 라면도 잘 먹을수 있어. 오케이?

동생
그래. 하나 끓여와봐.

누나
알았어! 너 약속했다? 나도 먹여줘야해 알았지?

동생
난 큰걸로.

큰 컵라면을 끓여준다.

동생을 먹여준다.

동생 (cont'd)
잘먹었어.

동생이 퇴장 할려고한다.

누나
야 어디가? 나도 먹여줘야지 이제.

동생
아니.

누나
아니긴 뭐가 아니야 나도 먹여주기로 했자나.

동생
아니. 아까는 내가 거짓말 한거였어.

누나
뭐? 야. 왜? 그러는게 어디있어? 난 그래도. 난 배고프단 말이야!

동생
누나. 나는 먹여주고 그러는거 절대 못해. 징그러워.

누나
아니 그래도 약속했잖아!

(Printed with the demonstration version of Fade In)

동생
난 약속한적 없어. 누나 혼자 신나서 생각 없이 약속 한거였지. 이것도 다 누나를 위한거야. 누나는 항상 생각없이 일을 젖으러 놓고 뒷감당 안해서 자기가 만들어놓은 상황을 책임 못져서 남들한태 의존을 하잖아. 그러면 안돼. 지금도 누나 때문에 우리 팔 다치고 누나 때문에 붕대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것에 대한 불편함은 다 남들한테 의존하면서 피할려고 하잖아. 이세상에서는 도움 받는것도 한두번이야. 어리버리하고 무능한 사람들은 대접 못받고 굶고 살아야하는 세상이라는 말이야. 오늘은 누나가 능하지 않다는것을 스스로 증명을해봐. 그게 너를 위한것이야.

누나
우린 가족이잖아. 니 누나 불쌍하지도 않니?

자기 누나 주위에 흘린 면과 국물이 보인다.

동생
하 알았어. 이번 한번만이다. 이건 약속이야. 알았지?

누나
진짜? 알았어! 응응 약속이야!

동생이 누나를 먹여준다.

누나는 행복하게 먹으면서 동생과 눈이 마주친다.

동생
아씨 눈! 징그럽게...

누나
(행복하게)
알았어.

CUT TO:

누난 다 먹고 동생은 다시 방으로 간 상태이다.

얼굴에 묻은 국물을 혀로 딱아 보지만 안닿는다.

휴지를 뽑아 어깨 쪽에 올려 놓아 얼굴에 비벼서 딱아본다. 잘 안된다.

동생을 다시 부른다.

누나
창욱아!

마지막 장면: 다 먹은 두 컵라면.